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뉴스레터

Newsletter of the Korea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2019년 4월호

- 홈페이지 : www.kmeea.com
- 메일주소 : kmeea@hanmail.net
- 학회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410
- 전화번호 : 02-880-7726

I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언

윤 건 영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본회 회장)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공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우리나라 시민(국민)들의 시민의식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주었고,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민주시민교육은 수동적인 시민을 양성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 교화와 동일시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 때문에, 정치와 교육을 관련지어 논의하거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기시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져 온 측면도 없지 않다.

최근에 다시 민주시민교육이 다시 공교육의 화두가 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지난해에는 교육부 직제 개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금년에는 다차원적인(현장 교사 교육, 예비교사교육, 시민교육의 제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다시 강조되는 배경은 많다. 우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민주주의 사회의 작동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 확대, 속의 민주주의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시대적인 흐름에 적합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기도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지식 내용 전달 위주의 수동적인 수업에 그쳐 교육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중심의 참여 수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능동적 시민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민교육 방법을 권장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반성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내에서의 논쟁을 시민 교육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존 민주시민교육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교육이었다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을 기르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는 도덕적 문제, 이슈, 주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여 나름대로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한 후에 윤리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풍부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소통이 되는 교실이 조성되어야 한다. 소통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사전달이 가능해야 하는데 ‘대화’가 대표적인 소통 수단이다. 대화는 학생이 스스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훌륭한 교육적 방법이다. 대화를 통하여 시민들은 창의성, 비판적 사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등과 같은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시민교육 내에서 심의 관행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이 그들의 정치적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를 배우는 데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교육에 대한 공동체적인 개념과 유사하다. 학생들은 이미 정계에 의해 형성된 공통의 정치적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이러한 공통된 가치를 이해하는 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서구 국가에서도 이를 중시 여겨 ‘민주적 의사소통’ 배우는 것이 시민 교육의 중심 목적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게다가, 학생들의 시민 교육을 성립하는 데 있어 교사들은 학생들의 토론에 대한 참여를 단지 학습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학습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적 체계에 대하여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민주적 방법과 의사결정 그 자체를 경험하게끔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합의, 피드백, 위임된 의사결정, 공식적인 토론 및 지지 등의 민주주의에서 요구하는 가치들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과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수동적인 시민을 타파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여,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동시에 공동체를 위해서 이타적인 행위가 가능한 시민을 육성할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덕과 내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수업은 학생 스스로가 도덕적 기준을 형성하여 능동적인 자율적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우리 도덕·윤리과 교육공동체 모든 구성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민주시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교과가 해야 할 역할과 과제가 무엇이고, 타 교과, 비 교과 활동에서 연계하고 협력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과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II

학회 동정

1. 춘계학술대회 안내

오는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0-1동(교육정보관) 101호에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도덕과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합니다. 그리고 신진학자들의 학위논문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위 주제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발표 및 내용	사회
13:00-13:30	등 록	
13:30-14:10	◆ 개회사: 윤건영(본회 회장, 청주교대) ◆ 축사: 정창우(서울대, 인성교육연구센터장) ◆ 기조강연: 신두철(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현수 (본회 총무이사, 부산대)
14:10-14:40	발표주제: 민주시민교육의 토대에 관한 성찰-시민성의 아프 리오리(a prior)로서 윤리와 도덕을 중심으로 발 표 자: 장준호(경인교대) 토 론 자: 김형렬(서울대)	윤영돈 (인천대)
14:40-15:10	발표주제: 포용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제 논의 발 표 자: 신호재(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 론 자: 허윤희(서울대)	
15:10-15:20	휴 식	
15:20-15:50	발표주제: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본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발 표 자: 김상범(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 론 자: 임상수(경인교대)	황인표 (춘천교대)
15:50-16:20	발표주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공화주의 개념 혼 재와 해결 방향 모색 발 표 자: 신종섭(군포고) 토 론 자: 김근호(청주교대)	
16:20-16:30	휴 식	
16:30-17:20	○ 신진학자 발표 발표주제: 사회적 직관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해석 가능성 연구	노희정 (광주교대)

	발 표 자: 양해성(서울대) 발표주제: 탈북학생 교육 경험의 통일교육적 의의 연구 발 표 자: 이슬기(서울대) 발표주제: 칸트 실천철학에서 나타나는 균열의 해소에 관한 연구 발 표 자: 차승한(예당중)	
17:20-17:50	종 합 토 론	박병춘 (본회 전 회장 , 전주교대)
17:50-18:00	폐 회 식	윤건영 (본회 회장, 청주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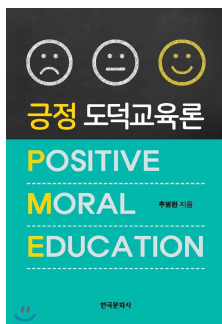
Ⅲ

회원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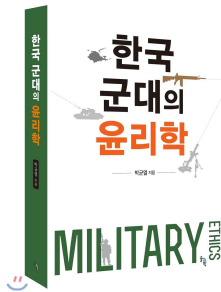
1. 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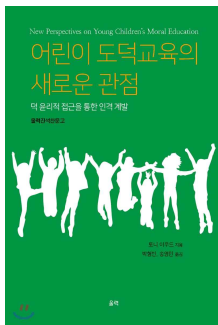
○ 본 학회의 부회장이신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정창우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21세기 인성교육 프레임』이 3월 중순 교육과학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람다움’과 ‘시민다움’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21세기 인성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진정한 인간다움과 이상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고 세계 안에서 사려 깊게 행동하는 방법,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조망하고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학회의 고문이신 춘천교육대학 추병완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긍정도덕교육론』이 한국문화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긍정심리학을 학교교육에 적용하는 시도인 긍정교육을 도덕교육적 맥락에서 논의하려는 학문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긍정 도덕교육은 긍정교육의 핵심 원리나 아이디어를 기계적으로 도덕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맥락에서 그 적용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가능하고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경상대학교 박균열 교수님께서 『한국 군대의 윤리학』을 솔과학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윤리학의 특수 분야 중 하나인 군대윤리에 대해서 오래 동안 이 분야에 천착하여 연구해 온 집대성의 산물입니다. 한국군의 역사와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사이버 전쟁과 전쟁윤리, 군대 내에서의 정신교육, 통일교육, 공보활동, 상담활동, 인성교육 등의 주제와 함께 군 장병의 도덕성 측정 등의 문제를 폭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 본 학회의 초등교육연구위원회이신 서울교육대학 박형빈 교수와 송영민 교수님께서 토니 아우드의 『어린이 도덕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번역하여 울력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상이한 맥락에서 채택할 수 있는 원리와 전략을 모색합니다. 또한 이 책의 지은이는 영국에서 어린이 학습에 관심을 가진 교사, 교장, 학자라는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발달과 이를 학교에서 강화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 취임 안내

- 본 학회의 부회장이신 송재범 선생님(前구현고등학교 교장, 민주시민교육과장)께서 2019년 3월 1일자로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 본 학회의 제주 지회장이신 변종현 교수님(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께서 2019년 3월 1일자로 제주대학교 부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 본 학회의 편집위원 및 인성교육위원이신 운영돈 교수님(인천대학교 윤리교육과)께서 2019년 3월 1일자로 인천대학교 사범대학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 본 학회 인성교육위원이신 김혜진 선생님께서 2019년 3월 1일자로 인천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임용하셨습니다.
- 본 학회 회원이신 박보람 선생님께서 2019년 3월 1일자로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임용하셨습니다.
- 본 학회 회원이신 문경호 선생님께서 2019년 3월 1일자로 성신여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임용하셨습니다.

IV

공지 사항

1. 학회비 안내

본 학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을 연 4회 구독하실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정산되오니, 연 초에 연회비를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회비 : 일반 회원 3만원 / 이사 및 임원진 : 10만원

※ 납부 계좌 : 국민 713701-01-458110, 예금주 : 윤건영(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학회비를 입금하실 때 반드시 성함과 함께 소속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천중학교 홍길동 → 홍길동 봉천

납부 명단

○ 특별회비 : 윤건영(100만), 황인표(50만)

○ 연회비 : 강구섭(3만), 김상돈(3만), 김선주(3만), 김홍수(3만), 박찬석(3만), 박형빈(3만), 손경원(3만), 송애리(3만), 신원동(3만), 신현우(3만), 양해성(3만), 이병기(3만), 이봉기(3만), 이운주(3만), 이영문(10만), 이혜진(3만), 장유정(3만), 조수경(3만), 차승주(3만), 추정완(3만), 한찬희(3만),

○ 평생회원 : 김연숙, 박균열, 박동준, 박병기, 박병춘, 서은숙, 이경희, 이인정, 정택준, 최형찬

○ 기관회원 : 전주교육대학교도서관(10만)

※ 19. 4. 5 기준

2. 투고 안내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의 63호 투고 논문을 모집합니다. 투고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의 잼스 시스템(kosmee.jams.or.kr)을 통해 4월 28일(일)까지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